

전북자치도,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

경제위기 내몰릴 도민 방패막 자처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김관영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1호 결재로 '다함께 민생도정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민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구성하고, 그간 경제·복지 등 주요 민생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최근 전북지역 주요 민생지표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에서 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민생 중심 도정 운영 천명 민생추진단 현장행정 지속 점검, 후속 대책도 추진

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10년간 가계대출금이 크게 증가해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생활물가 또한 도민들의 생활고를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2023년 4분기 기준 전북지역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은 15%로 전국 평균(8.8%)보다 2배가량 높다. 도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23년 전년과 비교해 31% 증가한 3,659건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발굴하고 민생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책의 도민 체감도,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도는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업목적, 시급성 등을 상세히 설명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됐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5월부터 민생현장을 방문해 다함께 민생추진단이 발굴한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번 다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II, III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대책이 도민들의 모든 위기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지만, 민생이 막막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커다란 장미꽃을 만났을 때 도정이 곁에 있음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민에 가시적 보답 결과물 다짐

민주 김윤덕 의원, 당 신임 사무총장 임명 관련

"21대 채상병 특검 마무리, 22대 민생 해결 등 집중"

전북 발전 위한 역할도 자처... "전북 몫 찾아올 것"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전주갑 국회의원)이 국민에 가시적인 보답을 위한 '결과물'을 다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자실에서 사무총장 임명 관련 전북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무총장 임명으로 어찌가 무겁지만 성과를 내는 것이 저의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총선 총평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21대, 22대에서 180여석이나 밀어줬는데 저희를 지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서 확보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가시적인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당의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1대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을 마무리하고 22대에는 마무리하지 못한 특검법 처리를 통한 진실 규명과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의사 과업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험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의사 측과 정부 측을 설득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발전을 위한 사무총장 역할도 자처했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미팅을 할 때 신임 전북출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함께 하려한다. 진 의장과 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이 23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하게 웃고 있다.

체제를 이뤄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전북이 최소한 서러운 것이 없도록 하고 정부의 몫을 뺏기보다 좀 더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전국 지역구에 대한 지역위원장 선임, 조강특위 운영, 시도당 개편 작업과 시도당 사무처장 순환 인사 등을 통해 다음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히고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

전북자치도가 4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4급이상 간부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위원장인 이진리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청렴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청렴실천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및 부패의 정의, 원인,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직접 경험해 온 다양한 사례에 비춰볼 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청렴의지 확립을 위한 리더의 기본과 자질에 대해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화합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나인권 도의원, 쌀 소비 촉진

국회 정책간담회 토론회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 토론회자로 참석했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의 쌀생산 현황 및 소비촉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전북자치도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의 15.1%, 15.7%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30% 정도는 도내 소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70%를 타지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의원은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홍보 및 소비 촉진만으로는 쌀 과잉물량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함으로써 쌀 과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백년대계 그리다'

23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리다'란 주제로 열린 2024년 전북연구원 연구성과 공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특례 중앙부처 수용성 제고

전북자치도, 25일까지 3회 걸쳐 세미나 열고 논의키로

의료용 헬프 산업화·생활인구 확대·크루즈관광진흥 등

전북자치도가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가 부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발췌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발췌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헬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RE100 참여기업 지원 근거 마련

이명연 도의원 발의 조례안, 전북자치도의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알이백 참여기업 지원 조례)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내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헬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른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가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도 실무 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는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현재 위기를, 전북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층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극복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크루즈산업의 국내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 중인 도 실무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 전북 내 서해안을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로 최초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켜 전북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보완하기 위한 기회가 됐다"며,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발췌된 40여 건의 2차 개정 입법과제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처의 반응이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모색된 방안은 앞으로 부처 대응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상반기 중으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이밖에도 △우선구매, △공공기관 평가 반영, △알이백 참여기업 홍보·지도, △포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 가무악 문화기술 R&D 공모 선정"

민주 윤준병 의원, 국비 40억 확보... 3년동안 기술개발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 국문테크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이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통예술 가무악의 융복합 공연 제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공연 기획·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으로 △정읍 국악, △정읍 농악, △정읍 수제천 등 정읍의 전통예술 가무악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본 사업을 통해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공연의 디지털화(디지털 악보 등), 가무악 제작 저작물(전북 예술단체 무상제공), 전통예술 아카이빙 미디어월 인프라 구축(정읍시에 제공)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사를 표하면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통예술과 문화기술이 융합된 미래 융복합 기술 개발로 우리 정읍의 '국악', '농악', '수제천' 등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공연이 세계적인 공연으로 성장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무궁화 진흥 지원 근거 마련

이병도 도의원 발의 조례안,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 40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무궁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